LG화학, 제3회 기업윤리대상 수상

LG화학(대표 노기호)은 한국기업윤리학회가 선정하는 제3회 기업윤리대상 수상기업으로 한국유나이티드제약과 공동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업윤리대상은 학회 소속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심사진이 매년 윤리경영에 성과를 거둔 기업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으로, 1회는 교보생명, 2회는 유한킴벌리가 각각 수상했다.

LG화학은 "1994년 LG그룹의 윤리규범 선포 이후 금품수수 신고제와 사이버신문고제를 운영하고 사업본부와 공장에 윤리사무국을 설치하는 등 임직원의 윤리경영 생활화와 투명한 기업문화 체질화에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학저널 2005/03/07>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